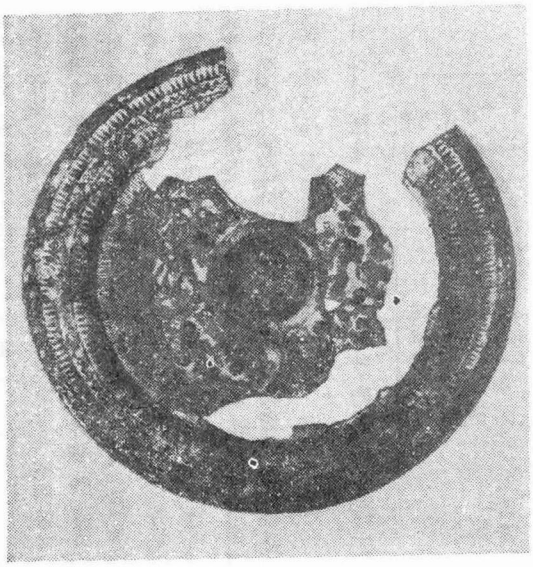
條에 世祖가 全羅監司에 對하여 守眉의 道岬寺 重營을 助緣하도록 下諭한 記錄이 보인다。이 上樑文의 첫머리에 실려 있는 成化九年(一四七三)보다는 九年 앞선 일이다。그러니까 이 解脫門은 제일 마지막으로 營建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 된다。

앞서 말한 無爲寺 極樂殿은 修理工事當時 後佛壁에서 發見된 銘文에 依하여 成化十二年(一四七六) 以前의 建立임이 밝혀졌었다。成化十二年 以前이라 하여도 결코 몇해씩이나 遡及되지는 않으리라고 推測되었던 것이다。이번 解脫門에서 發見된 成化九年의 上樑文은 無爲寺 極樂殿의 完成年代에 對하여서도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重要한 資料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全北 益山出土 六朝鏡

洪 思 俊



全北 益山郡 三箕面 蓮洞里의 胎峰寺敷地에서 六朝鏡(破) 一面이 發見되어 一九五七年 十月 四日 扶餘博物館으로 들어 왔다。

鏡은 거의 切半이 깨져 없어지고 全面 黑銹에 덮였으며 直徑一四·四cm 緣高一cm 內區主文은 神獸文이고 一段 높아진 外區에는 雙平行線 지그자그文帶를 가운데에 둔 內外二帶의 鋸齒文이 돌려지고 있다。內區周緣에는 現在 「家人民息 胡羌捻滅 天下復 風雨」의 十三字가 아직 남아 있다。

이와 비슷한 內容의 銘文을 가진 것으로 年代가 確實한 것으로는 太康三年鏡(東晋·武帝 西紀二八二年)(梅原·漢三國六朝紀年鏡圖說 (P·一〇九)이 있으며 그 銘文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太康三年歲壬寅 吾作竟 幽凍三商 四夷服 多賀國家 人民息 胡虜殄滅 天下復 風雨時節 五穀熟 太平長樂

南韓에서 發見되는 中國六朝鏡으로서는 初出의 確實한 例라고 할 수 있으며 重要한 發見이었다。

原州의 寺蹟：興法·法泉·居頓

鄭 永 鎬

一、興法寺址：江原道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興法洞

서울驛 또는 淸凉里驛에서 中央線으로 約 三時間 江原道에 들어서면 서 첫驛인 艮峴에서 下車한다。이곳서 艮峴江을 건너 流域을 따라 約三粁에 安昌國民學校가 있고 다시 約一粁로서 興法洞에 이른다。이곳이 바로 興法寺址로서 洞里入口의 언덕에서 바라보이는 넓은 台地는 높이 約三米 길이 約六〇米의 石築위에 있으며 門址와 二層基壇上의 三層石塔 一基가 있어 高麗初의 建立으로 推定된다。(塔 高三米七〇糎) 創建年代는 알 수 없으나 東國輿地勝覽에 들어 있어 李朝初期까지는 存續되었던듯 하며 그 후 寺址에는 數種의 石造物만이 殘存하였다。景福宮에 移建된